

1교시

독서론 영역

[목차]

- 1p : 목차
- 2~4p : 지문 분석
- 5~6p : 선지 분석
- 7p : 개념 정리

[서론]

- 제작자는 저능해서 성적표 인증도 못 하는 늙은이입니다. 따라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어지간하면 오류일 겁니다.
- 해당 지문은 저의 고3 시절 경험을 살려서 만든 지문이다 보니, 해설한답시고 라떼는 말이야 하며 TMI를 발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딱 한 번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영화 보면 주인공도 유언은 들어주고 악역을 해치우지 않습니까.
- 지문의 오류를 지적해주신 오르비의 '진학사는염전이다' 님과 '대기 만성' 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 해당 지문은 한국독서문화재단 홈페이지, 2024 이원준 브레인 크래커 기초, 나무위키의 논리학 문서를 참조했습니다. 브레인 크래커를 참조했는데 왜 스키마의 정의가 서로 다르냐고 물어보면, 그건 같은 용어라도 학계에 따라 달리 쓰이기 때문입니다. 인지과학은 교육학이 아니에요.
- 지문 분석에 사용한 교과 개념은 수능특강을 참조했습니다. 해당 방식을 사용하는 데에 도움을 주신 오르비의 '퍼런' 님께도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 이 지문의 빠른 정답은 3, 4, 1입니다. 채점을 다 하셨으면, 이제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1문단] 지문 분석

교육학에서 스키마는 이미 검증된 학술적 개념이지만, 실제 독서 교육의 대상들에게는 이 단어가 오용되고 있다. ㉠우리는 흔히 글의 제재에 대한 배경 지식을 스키마로 정의하지만, 이는 논리적 오류이다. 특정 개인이 겪은 경험의 총체를 의미하는 스키마는, 글이나 담화의 내용에 관한 배경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 스키마와 그것의 조직 방법에 관한 배경 지식인 형식 스키마로 나눌 수 있다.

<1문단>

의도한 행동 01 : 사실적 읽기 (개념에는 예시가 수반한다.)

스키마가 학생들에게 오용된다는 “개념”을 알았으면,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시”를 찾아야 합니다. 해당 문단에서는 바로 뒷 문단에 ㉠라는 예시를 주지만, 사실 ‘이것까지 예시를 굳이 넣어줄 필요는 없겠지?’ 하는 상황이 더 많죠.

지문에 개념만 있고 그에 대한 예시가 없는 경우에는 배경 지식을 이용해 “상상”하여, 개념을 각인하는 게 좋습니다. 예시가 없으면, 개념을 시각화라도 하세요. 김XX 강사님, 심XX 강사님이나, 마X, 국X만 같은 독학서가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의도한 행동 02 : 사실적 읽기 (예시를 상상했으면, 이해는 연결하면서 쌓는 것이다.)

㉠를 읽고, 바로 “이게 무슨 개소리야?”가 나올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물어보면, 뽀뽀한 재능충이나 국어 공부를 해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주장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왜 근거나 원인은 없고, 대뜸 결론부터 지름? 님 진짜 국어 9등급임? 수탐으로 대학 감?”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교과서가 요구하는 사실적 읽기에서의 글의 상위 구조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뒷부분을 읽으면서 ‘㉠의 근거는 뭘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포일러를 해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린 교과서 내용의 학술적 근거가 2문단에 나옵니다.

의도한 행동 03 : 사실적 읽기 (비문학에서 관형절은 개념을 정의한다.)

‘㉠는 대체 무슨 개소리였을까?’ 생각한 당신! 관형절 3콤보를 맞으니 어지럽죠? 대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비문학에서는 개념에 대한 정의(논리학으로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도 한다!)를 관형절로 통치는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배경지식도 사실적 읽기의 조건에 들어갑니다.

의도한 행동 04 : 추론적 읽기 (연결하니 이유가 보인다.)

스키마의 정의를 행동 01을 통해 각인한 당신! 벌써 ㉠의 이유가 보이지 않으신가요? 글의 제재에 대한 지식이 스키마로 정의된다면, 형식 스키마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셨다면, 바로 문제를 푸셔도 되긴 합니다! 이 지문은 사실 그걸 논리학으로 설명하는 게 전부거든요!

[2문단] 지문 분석

형식 스키마에 논리학을 포섭하려는 의견이 있다. 기존 연구가 글 전체의 전개 방식에 집중했다면, 이 의견은 반대로 글 속에서 이루어지는 논증의 전개 방식에 집중한 것이다. 논증은 전제로도 불리는 근거와 그에 기반한 결론이 연결된 형태로, 설명도 이에 해당한다. 만약 특정 논증이 비논리적이거나, 근거나 결론 중 하나 이상이 거짓이거나 둘의 연결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논증과 그에 대한 반박의 구조를 미리 학습한다면, 독자가 글 속의 논증을 이해할 때 드는 인지적 부담은 줄어든다.

<2문단>

의도한 행동 01 : 사실적 읽기 (개념에는 예시가 수반한다.)

1문단 뒷부분부터 2문단 2번째 문장까지, 쪽 예시를 상상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그것의 조직 방법’, ‘글 전체의 전개 방식’을 통해 학교나 인강에서 배운 P-S, 나열, 개념-예시 등을 생각하는 것이 출제 의도거든요. 참고로 방금 말한 것들, 지문 초안에는 있었어요. 좀 더 독서론스럽게 쓰려고 내용 추가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논증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똑같이 예시를 상상했으면 더 좋았겠죠. ‘나는 국어 시험을 잘 보므로 똑똑하다.’ 라는 문장을 생각한 다음, ‘나는 수능 국어 3등급이다.’ 같이 근거를 약화시키는 문장, ‘애는 IQ 90이다.’ 같이 결론을 약화시키는 문장, ‘국어 시험을 잘 본다고 똑똑하다는 보장이 없다.’ 같이 둘의 관계성을 부정하는 문장 3개를 생각하는 겁니다.

또한 논리학에 대한 학습이 독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인다는 사실도 나름의 이유나 예시를 붙여가며 읽으면 더 좋았겠죠. 당신이 컴잘알이라면, RAM을 생각하셨을 수 있겠습니다.

<2문단>

TMI 01 : 논증의 반박 방법은 어떻게 볼릴까?

4번째 문장에서 그냥 냅다 정보를 던져버렸죠? 어지러운 분들을 위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가 거짓인 경우는 전제 부정이라 불립니다. 전제(=근거)의 참을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거짓인 경우는 결과 부정이라 불리겠죠? 그렇다면 둘의 연결이 잘못된 경우는 뭐라 부르나요? 근거와 결과 둘이 논증 관계가 아니라는 뜻을 담아, 관계 부정이라 부릅니다. 이 3개를 브레인크래커 기초에서 그대로 다룹니다.

TMI 02 : 설명이 논증이라고?

16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따르면, 햄펠은 설명 또한 근거인 설명항과 결론인 피설명항으로 구성된 논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명할 특정 사실 A가 피설명항이라 할 때, A는 과정 B를 통해 성립한다면 과정 B가 사실 A의 참을 뒷받침한다는 것이죠. 논증이라고만 하면 특정 글에서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는 반론이 들어올까 무서워서 은근슬쩍 스리슬쩍 넣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해 쟁과 하고 넘어가셔도 합법이에요.

[3문단] 지문 분석

이때 명제를 기호로 치환하는 기호논리학 또한 인지적 부담을 줄인다. 하나의 명제는 알파벳으로, 두 명제가 결합한 새로운 명제는 두 알파벳과 특수문자로 표현한다. 'P이면 Q이다.'를 $P \rightarrow Q$ 로 압축하고, 'P가 아니다.'는 $\sim P$ 로 압축한다. $P \rightarrow Q$ 일 때, P와 Q는 P가 Q의 부분집합인 관계를 지닌 서로 다른 두 집합이다. 즉, P와 $\sim Q$ 의 교집합이 있다면 $P \rightarrow Q$ 는 거짓이다.

<3문단>

의도한 행동 01 : 사실적 읽기 (연결은 확실한 기준을 가진다.)

인지적 부담을 줄인다는 표현을 보고, '논증을 배우는 것이랑 똑같은 효과네!' 하셨으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로 내야 했는데 못 했거든요. 구조도를 그리거나, 스키마라 불리는 지식 그래프를 그리거나 할 때, 해당 부분이 있다면 매우 잘하신 겁니다.

의도한 행동 02 : 사실적 읽기 (개념에는 예시가 수반한다.)

P와 $\sim Q$ 의 교집합의 존재가 왜 $P \rightarrow Q$ 의 반례일까요?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P가 Q에 포함된 것이 $P \rightarrow Q$ 인데, 그걸 부정하고 있지않습니까. 사실 탁한 발상 아니냐고요? 이거 고1 수학입니다. 이것도 모르면 상경계, 이공계 수업 어떻게 들으려고..

근데 'P와 $\sim Q$ 의 교집합의 존재'가 아니라 'P와 $\sim Q$ 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거 아니냐고요? 저보다 더 똑똑하시네요. 저도 지금 해설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분량 줄이다가 생각 못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P and $\sim Q$ 의 원소의 존재'라 하면 오류 없는 완벽한 글이 됐을 거 같네요.

참고로 예시를 상상하라고만 했지 어떻게 상상하라고는 말을 안 했는데, 벤다이어그램 같은 시각적 요소를 강조하면 기억이 더 오래 갑니다. 정확히는 예시가 아니더라도, 개념이 정의될 때 철학자 1명이 개념을 설명하는 장면을 떠올리는 것도 매우 좋아요. 사실 제가 귀찮아서 이런 것도 강 예시라 통치고 넘어간 건데, 마X에서는 이를 대화하며 읽기라고 합니다.

아, $\sim P$ and Q도 반례가 될 수 있냐는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축하드립니다. 다음 문단의 행동 04에 답이 암시되었습니다. 밑의 빈칸에, 여러분들의 용어로 그 답을 적어보세요!

[4문단] 지문 분석

논증의 방식 중 하나인 삼단논법을 통해 논리적 오류를 이해할 수 있다. 삼단논법에서 결론을 구성하는 대전제와 소전제는 다시 전제와 결론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대전제의 전제와 소전제의 결론은 같은 명제로서 대전제와 소전제를 하나의 결론으로 연결한다. 즉, 삼단논법에서 대전제가 $Q \rightarrow R$ 이고 결론이 $P \rightarrow R$ 이라면, 소전제는 $P \rightarrow Q$ 로서 이는 참으로 성립한다. 하지만 삼단논법이라는 전제가 없는 상황에서, $Q \rightarrow R$ 과 $P \rightarrow R$ 의 성립만으로 $P \rightarrow Q$ 가 반드시 참이라 볼 수 없다. 단지 P와 Q의 합집합이 R의 부분집합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뿐이다.

<4문단>

의도한 행동 01 : 사실적 읽기 (예시를 상상했으면, 이해는 연결하면서 쌓는 것이다.)

'삼단논법에서 결론을 구성하는' 보자마자 2문단에서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된 논증은..' 떠올리고 둘을 바로 이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전제와 소전제는 전제, 그리고 그 둘의 결합체가 결론이 되어 논증 관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대전제와 소전제가 전제와 결론으로 나누어지는 논증이라는 걸 확인하면, 바로 명제 5개가 그림으로 그려질 것이고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의도한 행동 02 : 사실적 읽기 (개념에는 예시가 수반한다.)

대전제의 전제와 소전제의 결론이 같다는 게 무슨 개소리냐고요? 바로 기호논리학을 이용해서 예시 들어줬죠? 바로 구조도랑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림 그려주면 되죠?

여기서 '아! 이게 인지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구나!' 하고 카타르시스 느끼셨으면 진짜 똑똑하신 겁니다. 설마 3문단 내용 보고 이 상황을 미리 예측하셨다고요? 그건 이제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하는 추론적 독해라 하는데, 이건 의도한 거 아님.

의도한 행동 03 : 추론적 읽기 (A가 있다면 $\sim A$ 도 있다.)

저는 삼단논법을 제시한 후, 삼단논법에서는 $Q \rightarrow R$ 과 $P \rightarrow R$ 의 성립만으로 $P \rightarrow Q$ 가 반드시 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대충 넘어갔다가 삼단논법이라는 전제를 부정하니까 뇌정지 온 분 계시죠? 글에 암시된 내용을 예상하며 읽는 것은 교과서에서도 권장하는 추론적 읽기인데, 저는 이 기준을 A가 있을 때 $\sim A$ 를 생각하는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삼단논법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그 조건이 없는 경우도 생각하고, A가 증가할 때 B도 증가한다고 하면 A가 감소하는 경우도 생각하라는 것이죠. 브크에서 4범주를 배우면 제가 무엇을 A로 보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 번에 해내라는 건 너무 과하고, 뒷 문장을 읽을 때 '화자는 삼단논법을 변수로 봤구나' 느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의도한 행동 04 : 추론적 읽기 (연결하니 이유가 보인다.)

'삼단논법이 아닐 때 $P \rightarrow Q$ 가 반드시 참이 아닌' 이유를, 3문단과 4문단의 행동 02를 통해 도출해보세요. 공란 있잖습니까

[5문단] 지문 분석

논리학을 활용해 글을 이해할 때는 일상언어의 모호성에 유의하여 오독을 피해야 한다. 가령, 문맥에 따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는 표현은 “대다수는 행복하다.”와 동치될 수 있다. 또한, 글을 명제로 치환하는 것에 치중해 글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5문단>

의도한 행동 01 : 사실적 읽기 (개념에는 예시가 수반한다.)

‘오독을 피해야 한다’는 개념에, 출처자칫GPT는 일상언어에서 “모두”는 “대다수”와도 동치될 수 있다는 예시를 덧붙입니다. 근데, 저게 왜 예시죠?

의도한 행동 02 : 추론적 읽기 (A가 있다면 ~A도 있다.)

근데, 왜 출처자는 저 말에다가 ‘일상언어’라는 조건을 붙인 걸까요? 설마, 일상언어가 아닌 상황에서는 저 둘이 동치될 수 없다는 걸까요? 그래서 오독을 피해야 한다는 개념에 연결된 거고?

의도한 행동 03 : 추론적 읽기 (연결하니 이유가 보인다.)

3문단에서 언급한 ‘P와 ~Q의 교집합은 P→Q의 반례가 된다.’를 살려서,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둘이 동치된다는 것은 대다수가 행복하다(=P)면 모두가 행복하다(=Q)는 것인데, 대다수가 행복하면서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사례(P and ~Q)가 있으니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둘은 다른 의미인데 일상언어에서는 동치된다는 것이죠.

의도한 행동 04 : 사실적 읽기 (개념에는 예시가 수반한다.)

글을 명제로 치환하는 것에 치중해 글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간과하는 사례를 생각하면 좋았겠죠? 문장 1개 읽다가 낱 새는 허수의 모습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4~5문단>

TMI 01 : 양과 질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양과 질은 대소 관계와 유무 관계를 나타냅니다. 무언가가 많고 적다를 무언가가 있고 없다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설명할 때 이진법과 십진법을 예시로 들곤 합니다. 0과 1밖에 없는 이진법은 질적 관계고, 0부터 10까지 무한으로 즐길 수 있는 십진법은 양적 관계예요. 마인드맵을 통해 나누자면, 유무를 나누고 유(有) 안에서 대(大)와 소(小)로 나누는 것이겠네요.

TMI 02 : 필연? 개연?

필연성은 무언가가 반드시 성립한다는 것이고, 개연성은 무언가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행복하다면, 모두가 행복하다.’는 개연적입니다. 대다수가 모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모두가 행복하다면, 대다수가 행복하다.’는 필연적이에요. 모두면서 대다수가 아닌 사람은 없어요.

TMI 03 : 복수실현? 매개념 부주연의 오류?

4문단에서 다룬 상황, 즉 Q→R과 P→R의 성립만으로 P→Q의 성립을 도출할 수 없다는 논리적 오류를 매개념 부주연의 오류라 부릅니다. 삼단논법에서 매개념(P)이 외연 전부(R)에 대하여 성립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오류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이름이 참 정 안 가게 생겼죠?

사실 브레인크래커에서도 저렇게 부르지는 않고, 그냥 복수실현에서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R은 P로만 실현되지 않고, Q로도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실현이라 부르는 것이죠. 브레인크래커에서는 이것 말고도 다양한 논리적 오류를 다룹니다.

TMI 04 : 도를 모른다면, ‘가추법’은 아십니까?

2024학년도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이라면, 이 용어를 보자마자 트라우마에 온몸이 벌벌 떨릴 겁니다. 수능특강의 지문이 개*같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사실, 이 지문에서 다루는 게 ‘가추법’이에요. 가추법은 4문단의 상황에서 P→Q가 반드시 거짓인 게 아니라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용한 추리 기법입니다. 즉, 필연적 거짓이 아니라 개연적 참이라는 것을 이용한 추리 기법입니다.

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상 위에 하얀 콩이 있고, 자루의 콩은 하얗다는 두 사실에서 책상 위의 콩은 자루의 것이라는 추리를 할 수 있다고. 책상 위의 콩(P)는 하얗고(R), 자루의 콩(Q)도 하얀색(R)이므로, 책상 위의 콩(P)는 자루의 것(Q)이다? 생각보다 가추법은 간단한 추리 기법입니다. 근데 수능특강은 이걸 배배 꼬아놨습니다. 저도 저 둘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걸 이 지문 만들면서 알았어요.

1.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스키마는 경험의 총체입니다. 경험이 다르면 스키마도 다르죠.
- ② 글이 경제 제재일 때, 환율은 글의 제재에 대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지식일 수는 없겠죠?
- ③ **전제와 결론이 모두 참이면서도, 둘의 연결이 잘못되면 해당 논증은 거짓이라고 2문단에 진술되어있습니다.**
- ④ 3문단에서 not P를 ~P, 'P면 Q'를 P→Q라 표현했죠. 이 둘을 조합하면 ~P→Q가 나옵니다.
- ⑤ 5문단에서는 '모든 P가 Q'가 일상언어에서는 '대다수의 P가 Q'라는 의미일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P가 Q라는 것은 P이면서 ~Q인 P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지문 분석에서 제시한 생각을 정확히 따라해야 제거할 수 있는, 상당히 난도 높은 선지였습니다.

<1번 문제>

TMI 01 : 필요조건을 아십니까?

3번 선지는 필요조건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제나 결론 중 하나 이상이 거짓'이 '해당 논증은 거짓'의 필요조건인지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고1 때 필요조건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있죠? 저도 브레인크래커에서의 기출 해설강의 계속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A가 B의 필요조건이라는 것은 B이면서 ~A인 경우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 지문에 따르면, 기호논리학은 이런 경우를 B→A라 부르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B의 필요조건인 A는 B를 부분집합으로 가지는 집합입니다.

그러면 A가 B의 충분조건이라는 것도 무슨 뜻인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A가 B의 충분조건이라는 것은, B의 조건으로 A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기호논리학에 의해 표현하면, A이면서 ~B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A→B가 됩니다.

지금 이 글을 'A는 ~A를 수반한다.'를 적용해서 읽고 계신 분들, 지금 폼 유지하시면 수능 날 100점 나올 겁니다.

2.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의도한 행동 : **추론적 읽기 (연결하니 이유가 보인다.)**

지문 분석을 읽은 후, 이 지문을 읽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거 그냥 스키마 정의랑 ㉠ 묶으면 바로 나오는 문제 아니냐? 글의 제재에 대한 지식이 스키마로 정의된다면, 형식 스키마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는 것에 부합하는 선지를 찾으려면 되잖아!”

맞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삼단논법과 기호논리학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 대답을 하려고 5문단에 달하는 글을 쓴 것인데 말입니다.

“제재에 대한 지식(P)도 스키마(R), 글 구조에 대한 지식(Q)도 스키마(R)이야. 근데 갑자기 P만이 R이라 주장하는 건 논리적 비약 아냐? TMI에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복수실현에 해당하는 것을 복수실현이 아니라고 왜곡한 거지.”

이렇게 대답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이 지문을 정복했습니다. 이원준 선생님은 각 문제마다 해당 문제의 핵심 논리를 해시태그(#)로 나타내죠. 저도 이를 따라, 이 문제를 해시태그로 정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복수실현**입니다.

- ① 글의 제재에 대한 배경 지식은 독자 개인의 경험적 검증을 거친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 ② 글의 제재에 대한 배경 지식이라는 용어는 논리학에 대한 지식과 그렇지 않은 지식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 ③ 글의 제재에 대한 배경 지식만으로는 근거와 결론으로 구성된 논증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설명하기도 귀찮습니다. 논점 이탈입니다.
- ④ **글의 제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아니면서 스키마로 부를 수 있는 지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윗글의 내용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⑤ 글의 제재에 대한 배경 지식이면서 스키마가 아닌 배경 지식은 존재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교묘히 명제의 순서를 꼬아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만들었죠. **특정 명제와 특정 명제의 역이 다르다**는 것은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글의 제재에 대한 배경 지식이면서 스키마가 아닌 것은 없어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는 존재합니다. 이 지문에서 그것은 형식 스키마라 불립니다.

3. <보기>는 한 학생의 독서 일지를 발췌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나는 오늘 ‘원숭이도 경제학과 다닐 수 있다!’라는 책을 읽었어. 가장 인상깊은 부분은 22학년도 수능에도 나왔던 개념인 기축 통화를 다루는 부분이었어. 책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기축 통화인 달러화가 많아야 이득을 봐. 그리고 미국이 경상 수지를 적자로 유지하면 우리나라가 보유한 달러가 더 많아지지.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득을 R, 달러화 획득을 Q,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를 P라고 하면, $Q \rightarrow R$ 이고 $P \rightarrow Q$ 니까 $P \rightarrow R$ 이야. 그러면 미국의 경상 수지가 적자인 게 사실 우리나라에게는 이득이었다는 거잖아?!

그렇다면 현 대통령의 정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킨 것도 설마 대통령이 미국의 경상 수지를 적자로 만들었기 때문일까? 이를 과외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질문했는데, 한심하다는 듯 어디 가서 자기 제자라 부르지 말라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평평 울었어.

<3번보기>

의도한 행동 : **추론적 읽기 (연결하니 이유가 보인다.)**

<보기>의 1문단은 기호논리학을 통해 지문에 대한 예를 친절하게 들어주고 있는데요. $Q \rightarrow R$ 은 대전제. $P \rightarrow Q$ 는 소전제, $P \rightarrow R$ 은 결론인 것까지 지문이랑 똑같이 맞춰줬습니다. 저급 한국에서 보기 드문 양심 있는 학생입니다.

그렇다면 2문단도 기호로 치환해주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대통령의 정책을 S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학생이 책을 읽은 후 떠올린 것은 $S \rightarrow R$ 이겠죠? 그리고 학생은 이것과 책에서의 $P \rightarrow R$ 을 조합해, $S \rightarrow P$ 를 만드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4문단에서 뭐라고 했죠? 삼단논법이 아니면 $S \rightarrow P$ 는 거짓이라고 했죠?

- ③ ‘우리나라는 달러화가 많아야 이득이라’는 것은 삼단논법에서 대전제에 해당하겠군.
- ④ ‘미국의 경상 수지가 적자여야 우리나라의 달러화가 늘어난다’는 것은 삼단논법에서 소전제에 해당하겠군.
- ⑤ 학생이 질타를 받은 이유는 삼단논법이 아닌 상황을 삼단논법으로 간주하는 논리적 오류를 저질렀기 때문이겠군.
→ 셋 다 윗글의 내용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선지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공간이 모자른 관계로, 옆으로 넘기겠습니다.

① 학생이 책을 읽고 ‘우리나라는 달러화가 많아야 이득이라’ ‘대통령이 한국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사실을 떠올린 것은 내용 스키마를 활용한 결과겠군.

→ 이 선지는 용어의 정의를 통해, 사실적 읽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1문단에서 스키마는 경험의 총체고, 그 중 하나인 내용 스키마는 ‘책의 제재와 관련된’ ‘배경지식’입니다.

그런데, 책의 내용이 ‘책의 제재와 관련된’ ‘배경지식’이라 볼 수 있나요? 책의 내용이니까, 책의 제재와 관련되긴 했겠지만 배경지식은 아닐 것입니다. 배경지식은 말 그대로 배경이 되는 지식, 즉 책의 내용 이전에 접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죠.

25.11 개화 지문의 <보기>에서, 특정 요소가 이미 실현된 미래에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선지를 통해 시간에 따른 mismatch를 유도한 것과 거의 유사한 trap입니다. 즉, 이 문제의 해시태그를 정의하면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② 학생이 책 속의 문장을 알파벳으로 바꾼 건 기호논리학을 형식 스키마로 활용한 결과겠군.

→ 이 선지는 용어의 정의를 통해, 사실적 읽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3문단에서 기호논리학은 명제를 기호로 바꾸어 조건문을 표현한다고 했고, 책 속의 문장은 조건문을 구성하는 명제라 볼 수 있죠. 따라서 참입니다.

여기서 ‘화자는 학생의 이 행동에 대해 학생의 인지적 부담을 줄였다고 말했는지?’라는 생각을 덧붙였다면, 축하드립니다. 저보다 추론적 독해를 잘하시네요.

<개념정리>

- 사실적 읽기는 해설에서 어떻게 표현됐지?

잠깐! 사실적 읽기는 글 표면에 드러난 의미를 그대로 이해하며 읽는 행위야! 그런데 이때 중심 내용과 아닌 것을 구분하고, 글의 구조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교과서에서는 말하지!

- 01 : 개념에는 예시가 수반한다.
- 02 : 예시를 떠올린 후, 이해는 연결하며 쌓는 것이다.
- 03 : 비문학에서 관형절은 개념을 정의한다.
- 04 : 연결은 확실한 기준을 가진다.

- 추론적 읽기는 해설에서 어떻게 표현됐지?

잠깐! 추론적 읽기는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는 행위야!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요소는 배경 지식, 담화 표지, 글의 문맥, 글의 종류 등이 있지!

- 01 : 연결하니 이유가 보인다.
- 02 : A가 있다면 ~A도 있다.

<TMI상>

TMI 01 : 설명이 논증이라고?

16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따르면, 햄펠은 설명 또한 근거인 설명항과 결론인 피설명항으로 구성된 논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명할 특정 사실 A가 피설명항이라 할 때, A는 과정 B를 통해 성립한다면 과정 B가 사실 A의 참을 뒷받침한다는 것이죠. 논증이라고만 하면 특정 글에서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는 편견을 깨고 싶었어요. 사실 기출은 웬만하면 16학년도 이전은 거의 안 보니까..

TMI 02 : 복수실현? 매개념 부주연의 오류?

$Q \rightarrow R$ 과 $P \rightarrow R$ 의 성립만으로 $P \rightarrow Q$ 의 성립을 도출할 수 없다는 논리적 오류를 매개념 부주연의 오류라 부릅니다. 삼단논법에서 매개념(P)이 외연 전부(R)에 대하여 성립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오류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이름이 참 정 안 가게 생겼죠? 사실 브레인크래커에서도 저렇게 부르지는 않고, 그냥 복수실현에서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R은 P로만 실현되지 않고, Q로도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실현이라 부르는 것이죠.

TMI 03 : 도를 모른다면, '가추법'은 아십니까?

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상 위에 하얀 콩이 있고, 자루의 콩은 하얗다는 두 사실에서 책상 위의 콩은 자루의 것이라는 추리를 하는 게 가추법이라고. 책상 위의 콩(P)는 하얗고(R), 자루의 콩(Q)도 하얀색(R)이므로, 책상 위의 콩(P)는 자루의 것(Q)이다? 가추법은 이 지문의 주제인, 복수실현의 예시입니다.

<TMI하>

TMI 01 : 논증의 반박 방법은 어떻게 불릴까?

논증은 근거, 즉 전제와 그에 따른 주장, 즉 결론이 연결된 형태를 띵니다. 이때, 근거가 거짓인 경우는 전제 부정이라 불립니다. 전제(=근거)의 참을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거짓인 경우는 결과 부정이라 불리겠죠? 그렇다면 둘의 연결이 잘못된 경우는 뭐라 부르나요? 근거와 결과 둘이 논증 관계가 아니라는 뜻을 담아, 관계 부정이라 부릅니다.

TMI 02 : 양과 질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양과 질은 대소 관계와 유무 관계를 나타냅니다. 무언가가 많고 적다를 무언가가 있고 없다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설명할 때 이진법과 십진법을 예시로 들곤 합니다. 0과 1밖에 없는 이진법은 질적 관계고, 0부터 10까지 무한으로 즐길 수 있는 십진법은 양적 관계예요. 마인드맵을 통해 나누자면, 유무를 나누고 유(有) 안에서 대(大)와 소(小)로 나누는 것이겠네요.

TMI 03 : 필연? 개연?

필연성은 무언가가 반드시 성립한다는 것이고, 개연성은 무언가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행복하다면, 모두가 행복하다.'는 개연적입니다. 대다수가 모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모두가 행복하다면, 대다수가 행복하다.'는 필연적이에요. 모두면서 대다수가 아닌 사람은 없어요.

TMI 04 : 필요조건을 아십니까?

A가 B의 필요조건이라는 것은 B이면서 ~A인 경우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 지문에 따르면, 기호논리학은 이런 경우를 $B \rightarrow A$ 라 부르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B의 필요조건인 A는 B를 부분집합으로 가지는 집합입니다.

그러면 A가 B의 충분조건이라는 것도 무슨 뜻인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A가 B의 충분조건이라는 것은, B의 조건으로 A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기호논리학에 의해 표현하면, A이면서 ~B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레 $A \rightarrow B$ 가 됩니다.

* 마지막 메시지
 ○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비판적으로 읽어주시고, 이 자료가 도움되기를 빕니다.

※ 모든 학습이 마무리되었습니다.